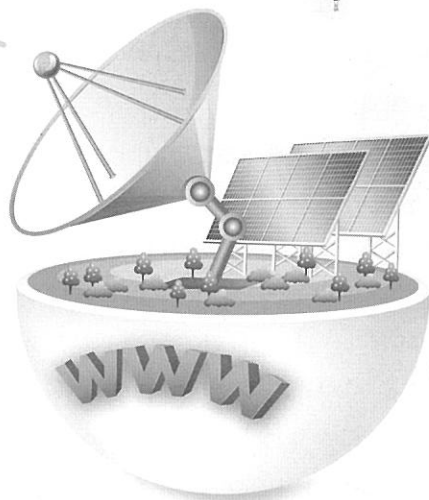


지구촌 양계 News



미국

농무부, 가뭄으로 육류·유제품 가격 4~5% 급등 전망

미국의 반세기만의 대가뭄으로 내년 육류와 유제품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농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내년 쇠고기 가격이 4~5% 오르고 돼지고기는 2.5~3.5%, 우유 등 유제품은 3.5~4.5%, 계란은 3~4%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여름 미 농작지 대부분을 휩쓸고 있는 대가뭄으로 옥수수와 대두 등 곡물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물가인상 전망 보고서다.

보고서는 특히 닭 등 가금류 가격은 올 하반기 3.5~4.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농무부 경제학자인 리처드 볼프는 “가금류는 사육기간이 짧아 사료 가격 인상에 첫 번째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물가들보다 앞서 올 하반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옥수수는 현재 부셸당 8달러로 한 달 전보다 50%나 폭등했다. 대두는 두 달간 부셸당 13달러에서 17달러로 올랐다.

옥수수는 유아식부터 음료수까지 수십 가지 상품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50% 상승하면 식료품 가격은 평균 1% 오르게 된다. 옥수수 생산량의 약 절반은 가축 사료로 사용된다.

정부는 올해 옥수수 생산면적의 88%, 대두 생산면적의 77%가 가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옥수수 생산량은 에이커당 146부셸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3년 이후 최저치다. 또 지난달 전망치인 166부셀을 밑도는 것이다. 대두는 에이커당 40부셀로 6월 예상치 43.9부셀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옥수수 생산량의 26%만이 우수 또는 양호 판정을 받았고, 45%는 불량 판정을 얻었다. 대두는 우수 또는 양호 판정이 31%, 불량 판정은 35%였다.

가뭄으로 목초가 감소하고 사료 가격이 급등하자 상당수 축산 농가들이 소를 내다팔거나 송아지를 도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쇠고기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는 11월부터 가금류를 시작으로 육류 가격이 일제히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뉴스1

이란

금화 대신 '닭고기' 달라는 사람들의 절규

서방의 대 이란 제재와 국제 사료값 급등으로 이란에서 '닭고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닭고기값이 1kg에 약 6만5000리(미화 약 5달러)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큰 세배나 뛰어올라 중산층 이하 계층은 닭고기를 구경하기 힘들게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란에서 닭고기를 먹는 모습이 방영되면 사회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닭고기를 먹는 모습을 TV에 내보내지 못하게

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7월 22일(현지시간) 이란 경찰 수장이 이달초 이란의 '닭고기 위기'에 개입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닭고기는 이란인들이 사프란과 자두, 석류 등과 함께 요리해 먹는 주식으로 최근 경제제재와 이란 통화의 가치하락으로 사료값 급등에 이어 가격이 치솟아 논쟁의 핵심이 됐다.

에스말리 아마디 모가담 이란경찰총장은 "이같은 빈부격차를 목격하는 일부 사람들이 칼을 잡고 부자한테서 자기몫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메르 통신이 전했다.

이란에서 식품과 연료값은 이란 정부의 부실관리와 핵개발과 관련한 국제 사회의 제재로 지난 18개월 사이에 크게 올랐다.

특히 주식인 닭고기의 경우 kg당 6만5000리얄(미화 약 5달러)로 지난 1년 사이에 세배 가까이 오르면서 월평균 소득이 377달러인 이란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게 됐다.

닭고기 값 급등은 이란 화폐가치가 암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해 40% 이상 하락하는 등 통화약세에다 수입가격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치솟은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란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온갖 불만으로 매우 시끄럽다. "이란에서는 두가지 계층이 있는데 닭고기선 위 계층과 그 아래 계층이 있다"고 시라즈의 한 주민이 트위터에서 불만을 표시했다. 한 예비신부는 "금화를 받느니 차라리 200톤의 닭고기를 달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란 관리들도 이같은 불만을 알고 닭고기가 충분히 공정한 가격에 공급될 것이라며 이란 사람들을 달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닭고기를 갖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린다거나 금식월(라마단) 동안 정부 보조 닭고기를 공급하고 충분한 양의 닭고기를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란 공무원들은 이란은 30년 이상의 경제제재를 견뎠고 앞으로 많은 제재를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경제제재는 이란이 외국의 제품과 석유수입 의존도를 끊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당장은 이란의 닭고기 산업은 외부세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육고기용 닭을 먹이는 콩과 옥수수는 해외에서 수입한다고 반박했다.

이란의 닭고기 생산업체는 로이터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닭고기 값은 이란의 부실관리와 제재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약 절반의 양계농이 원료 수입값이 너무 비싸 닭고기 생산을 중단했다”면서 사료값과 수입백신값의 급상승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안됐지만 값을 내릴 수 없어 많은 이란인들이 화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활동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이란에서 닭고기 위기와 경제난에도 정부의 정권장악력에 도전할 시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닭고기값은 이란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반 아마디네자드 의원들은 위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행정부부내 정적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란 ‘학생통신’에 따르면 아마디네자드 경쟁자이자 의회대표인 알리 라리자니는 가금과 가금 업자들은 건초와 사료 부족에 대해 6개월전에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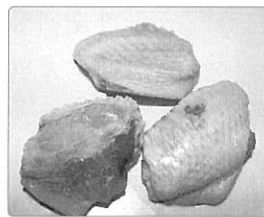
아마디네자드는 현금지급을 이유로 거의 모든 이란인들에게 줬던 후한 보조금을 없애버린 2010년 경제개혁도입 이후 경제실적이 나빠지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닭고기 공급 정책을 편 탓에 불만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1980년대 이란 이라크전 당시 최악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한 대학교수는 “매일 아침 닭고기를 사려는 줄이 길게 서 있다”면서 “1981년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 아시아경제

중국

가짜 쌀에 이어 가짜 ‘닭날개’까지 ‘충격’



가짜 쌀과 가짜 염소고기, 가짜 조미료에 이어 가짜 ‘닭고기’까지 중국에서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허페이완바오(合肥晚报)와 21CN 등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샹오산(萧山)에서 ‘인조 닭날개’가 등장해 사람들을 경악

케 하고 있다. 색깔이나 감촉 등 겉모양이 일반적인 닭날개와 차이가 없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문제의 닭날개를 제보한 차오(曹)씨는 지난 13일 농수산물 시장에서 한 젊은이로부터 닭날개 500g을 구입했다.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이라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색깔은 물론 감촉이나 생닭고기 특유의 비릿한 냄새도 나서 안심하고 샀지만 요리한 닭날개에서는 고기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속살은 투명하고 소라나 고무를 씹는 것 같았다. 차오씨는 혹시나 하고 다시 조리했지만 살코기의 색은 여전히 투명했고, 오히려 노란색의 액체가 흘러나오기까지 했다.

허페이완바오는 그 닭고기를 수거해 안웨이 농업대학(安慰农业大学)의 식품과학원에 검사를 맡겼다. 축산품가공 전문가인 왕즈경(王志耕) 교수는 “육안으로 관찰 후 닭껍질 표면에 닭털도 있다”며 “만약 가짜라면, 가짜의 완성도가 너무 높다”고 말했다.

현미경으로 검사 결과 왕 교수는 이 ‘닭날개’가 진짜 ‘닭’의 날개가 아님을 확인했다. 닭껍질에 털은 있으나 모공은 없다는 것. 또 이 의심스러운 ‘닭날개’는 닭고기라면 현미경을 통해 당연히 보여야 할 섬유조직이나 수의 근도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닭고기’의 구체적인 성분이나 인체에 해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조사 과정에 있다.

한편 샤오산르바오는 닭고기를 화학물품에 담가 불린 뒤, 희고 연하게 변하면 물과 함께

냉동시켜 무게를 증가시켰을 것이라고 가짜 닭고기 제조과정을 추측했다.

- 헤럴드경제

멕시코

AI 확산 방지 위해 가금류 250만마리 살처분


멕시코 농업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주 동안 서부 일대 양식장에서 가금류 250만마리를 살처분했다고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멕시코 농업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양식장의 가금류 340만마리 가운데 250만마리가 예방차원에서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멕시코 농업부 관계자는 양식장 148곳을 방문했는데 이 가운데 AI감염케이스가 발견된 양식장은 31곳이라고 말했다. 34개 양식장에서는 AI바이러스 감염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 양식장의 감염여부는 판독중에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멕시코의 AI 발병은 지난 6월 20일 서부 할리스코주(州)에서 처음 확인됐다. 멕시코 정부는 7월 2일 AI 확대를 막기 위해 국가동물보건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에 확산우려가 되는 AI바이러스는 인체에 치명적인 ‘H7N3’ 바이러스이다.

다만 이 바이러스는 인체 접촉으로 감염되는 것은 아니라고 유엔은 밝혔다. 

- 서울=뉴스1